

빈틈없는 수해대책 '하천 위험 제로'

도림천 구로디지털단지~도림천역 진출입차단기 18개소 설치 자동경보시설 8개·문자 전광판 13개 가동 '민관 하천순찰단' 운영

구로구가 장마철에 대비해 하천 수해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구는 "집중호우 시 갑작스런 수위 상승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먼저 구로구는 도림천에 진출입 차단기 총 18대를 운영한다. 도림천은 폭이 좁고 밀폐된 구조로 집중호우 시 고립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신도림역 구간에 9개, 신도림역에서 도림천역 구간에 9개를 설치했다. 진출입 차단기는 갑작스런 폭우에도 구청에서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즉시 대응이 가능해 주민들의 진입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다. <관련기사 3면>

구로구는 민·관 합동 '하천순찰단'도 확대 운영한다. 지역자율방재단, 공무원과 함께 올해는 전문업체를 추가로 투입해 안양천, 목감천, 도림천, 역곡천 등 관내 하천을 관리한다. 총 36명 5개조로 팀을 이뤄 각 하천 수방시설과 취약구간을 수시로 점검하고 강우 특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진입을 막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하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예·경보시스템도 가동된다.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경보방송을 송출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자동경보시설을 목감천 3개소 도림천 4개소, 안양천 1개소 등 총 8곳에 설치했다. 이와 함께 안전 문구, 위험 안내 등을 표시하는 문자 전광판도 도림교, 개봉교, 목감교, 광명교 등 총 13개소에 운영 중이다.

한편 구로구는 평소 악취가 많이 발생하던 구로디지털단지역과



구로구가 장마철에 대비해 하천 수해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구는 도림천 등 집중호우 시 갑작스런 수위 상승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도림천에 설치된 진출입 차단기>

구로1교 하부 도림천변에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근 치수과장은 "도림천, 안양천 등 하천은 도심 속 자연공간

으로 산책로, 자전거길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한다"며 "각종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하천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구로구 '협의회장상' 수상

'IoT기반 위험시설물 예·경보시스템' 우수정책 선정

구로구가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우수정책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한 대회로 시상식은 지난 5월 31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됐다. 이성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상을 받았다.

이번 정책대회에서 구로구는 'IoT 기반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예·경보서비스'가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구로구는 2018년 전국 최초로 'IoT 기반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예·경보서비스'를 마련했다. 건물, 교량 등 노후·위험시설물에 설치된 감지센서를 통해 기울기, 균열, 진동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붕괴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측정값이 기준치를 벗어나는 경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청 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구로구가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장상을 수상해 이성구청장(오른쪽)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으로부터 협의회장상을 수상하고 있다.

구로구는 관내 학교, 어린이집, 동주민센터, 응벽, 공동주택 등 139곳에 600개의 감지센서를 설치했다.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성구청장은 "안전한 스마트 구로를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스마트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시민과 함께 비상하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서울시의회
시민이 주인 된 지방의회
시민과 함께할 서울시의회

가리봉시장 내 유희부지 12층 청년주택 건립

2023년까지 246가구, 지하엔 3층 공영주차장 조성

구로구 가리봉시장 내 유희부지에 지상 12층 규모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지난 1일 서울시는 가리봉시장에 방치된 부지에 청년주택 및 주차장 등을 포함하는 복합건물을 짓겠다고 밝혔다.

부지는 3708.2㎡ 규모로, 1997년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던 중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시공업체 부도 등으로 사업이 좌초된 후 사설 주차장·고물상 등으로 사용돼왔다.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해당 부지가 선정돼 청년주택·주차장 등 사업계획이 세워졌다.

시는 이 부지에 2023년까지 지하 3층~지상 12층, 연면적 1만



구로구 가리봉시장 내 유희부지에 2023년까지 지상 12층 규모의 청년주택과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 (사진은 완공후의 조감도)

7829.69㎡ 규모 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지상 3~12층에는 청년 대상 행복주택 246가구, 지하에는 186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지상 저층부에는 시장 고객지원센터, 육아지원센터 등 생활편의시설을 짓는다.

구로구는 구유지인 해당 부지의 무상 사용을 허가하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구조다. 설계·시공은 민간 업체가 맡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유권 기자>

이성 구청장 'SOS 릴레이 챌린지' 동참

이성 구청장이 지난 2일 'SOS (Save Our Seoul)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SOS 릴레이 챌린지'는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 등을 위해 지난 4월 2일 서울시의회에서 시작된 SNS 캠페인이다.

박래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명을 받은 이성 구청장은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고'라는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어 이성 구청장은 다음 참여자로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임



이성 구청장이 지난 2일 구청장실에서 'SOS(Save Our Seoul)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경우 구로경찰서장을 지목했다. <김유권 기자>

'민원인도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홍보물 제작

구로구가 '민원인도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홍보물(사진)을 제작했다.

구는 주민들이 '청탁금지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만화로 정리해 홍보물에 수록했다.

또 청렴 핫라인 청렴신고전화(860-3470),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갑질피해 신고센터 등 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신고제도에 대한 안내도 담았다.



구로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민원인도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총 1000부 배부했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도 만들어 구 블로그, SNS 등에도 게시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안전 의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68억, 조례안 등 안건 처리

7일~15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6월 4일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달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6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 후, 6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그간 심의 했던 안건의 의결을 마쳤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668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 중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2개 사업에서 4억1천9백60만 원을 삭감하고, 학교환경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1천9백6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서울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만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사회



구로구의회가 제302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규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7일 구청 3층과 5층에서 열린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행정감사 모습)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변경(안) ▲고척동 한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10건이 원안가결(원안 채택) 되었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앞서 ▲서울시 구로구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

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6월 7일부터 15일까지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규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과 18일에는 제3차, 4차 본회의를 열어 일반분야 구정질문을, 6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시책분야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29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사례로 쉽게 따라하는 '부동산거래신고 안내서' 발간

신고서 작성·제출 등 전 과정 정리... 중개업소에 배부

구로구가 사례로 쉽게 따라하는 '부동산거래신고 안내서'를 발간했다. (사진)

구는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부터 신고서 작성·제출까지 전 과정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 안내서'는 88쪽으로, 처음 신고하는 이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실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과 이에 대한 해설을 함께 수록했다.

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규제지역에서의 주택거래 계약 시 필요 서류와 작성·제출 방법에 대한 설명도 담았다.



구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했다.

박노균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장은 "부동산거래신고 안내서가 부동산 관계 법령 개정과 전자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회장: 유희상 발행인: 김유권
주간: 한만수 편집국장: 채홍길

구독료: 월 5,000원 / 연 50,000원
기사제보: 02-830-0905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기상청 “올해, 작년보다 무덥다... 장마는 6월 하순”

장마철 대처 이렇게

기상청은 올 여름이 평년보다 덥고 국지성 호우도 잦을 것으로 예측했다. 여름철 기상 전망을 통해 33도 이상의 폭염 일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특히 한여름인 8월에는 고온 현상과 열대야 등 극한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 시작일은 평년과 비슷해 제주도에는 6월 중순, 중부 지방에는 6월 하순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태풍은 평년과 비슷한 2~3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겠으며 초강력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장마가 보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장마철의 집중호우에 대비 '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집중호우 발령시에는 저지대 및 상습침수구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에 조심해야 하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감속운행을 해야 한다. 만약 낙뢰 시에는 건물 안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 이 밖에 호우 경보 발행시 주의 사항을 알아 본다.

◆장마철 기상에보 주의 깊게 청취해야

호우 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분들은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평소 기상에보 및 태풍 상황을 주의 깊게 청취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역시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은 대피를 해야 하며, 만약 침수 예상 건물의 지하 공간에 있다면 서둘러 대피 조치를 해야 한다.

대형공사장 주변, 침수 도로구간에는 보행 및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아파트 옥상, 지하실, 하수도 등 맨홀에 접근하면 안 된다.

◆위험한 시설물 사전에 제거

위험한 시설물은 사전에 제거를 해야 하며, 정전 등 상황에 대한 비상대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방 자재 및 구호물자를 활용하여야 하며, 비상시 연락방법 및 교통이용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축대나 담 붕괴 조짐이 보일 때는 신속하게 알려서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갑자기 땅에서 대량의 물이 솟아나거나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땅울림이 느껴진다면 산사태 조짐이다. 산 동산 주변 축대 옹벽 담장 주변은 통과 위험이 크므로 피해야 한다. 침수되었던 집이나 물건의 경우 각종 오물에 오염되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침수가 장기간일 경우 반드시 환기를 시킨후 들어가야 하며, 젖은 물건은 우선 건조시켜야 하고 반드시 장갑 장화를 신고 작업해야 한다.

◆건다가 집중호우와 천둥 번개 만났을 때

건다가 집중호우와 천둥 번개를 만났을 때 '번쩍' 하는 번개와 '과광' 하는 천둥의 시간차이가 적을수록 가까이서 벼락이 치고 있는 것이다. 우산이나 '뽀족한' '금속' 들



기상청은 올 여름이 평년보다 덥고 국지성 호우도 잦을 것으로 예측했다. 올 여름은 33도 이상의 폭염 일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강우량도 많을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각종 재해에 대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집중호우 대비 저지대·상습침수구역·맨홀 등 속지 기상에보 및 태풍 상황따라, 재해 대처 훈련 필요 도로의 작은 지뢰 '포트홀' 생겨, 차량운행 주의를

은 번개에 맞는 피뢰침 역할을 한다. 우산은 쓰지 말고, 큰 나무, 전신주 등에도 벼락이 떨어질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

번개가 심할때는 건물안으로 대피하여 번개가 지나갈때 까지 기다리고, 물에 잠긴 도로나 물가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장마 때 전염병 유행시 예방법

장마철에는 습도가 많고 비 오는 날이 많아서 각종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 전염병 유행시 예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후 섭취하고, 조리된 음식을 장기간 보관해서는 안된다.

- 채소류 등은 반드시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

- 각종 식기구(도마, 칼 등)를 한번에 여러 재료에 사용하지 말고, 사용 후 세척, 건조를 시켜야 한다. 손에 상처가 있거나, 설사, 고열, 복통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해서는 안된다.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기피제를 바르는게 안전하다. 모기의 활동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외출을 삼가해야 한다.

- 집주변에 고인물(웅덩이, 페타이어, 물고기 가 없는 연못, 양동이 등)을 제거해야

한다.
- 설사, 발열, 피부질환 등의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손씻기만 잘해도 전염병의 70%는 예방된다.

한편, 호우 특보 기준은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 될때,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를 말한다.

◆장마철의 또 다른 복병 '포트홀'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포트홀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구된다. 자동차가 도로 위 움푹 팬 구멍인 일명 '포트홀'을 지나가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시험한 결과, 차량이 포트홀을 지나는 순간 타이어의 옆면이 부풀거나 찢어지는 현상이 생겨 타이어나 휠의 파손 또는 변형, 공기압 손실로 차량 전복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비가 온 뒤 포트홀이 많이 발생해 차량에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구로구에서도 지난 해 8월 개봉로 2차선 도로에서 포트홀(토로 파임 현상)이 발견됐다 신고가 접수됐다. 구는 즉각 오전 7시 30분께 개봉로 2차선 도로에서 가로 50cm, 세로 50cm가



량의 포트홀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은 주변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를 설치했다.

◆포트홀 발생 주요 원인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도로위에 구멍 뚫린 도로 한번쯤은 봤거나 지나친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 포트홀이라고 한다. 어찌까지 만해도 포트홀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일까. 포트홀이란 말 그대로 구멍을 뜻한다.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아스팔트도로 시공시 부실시공이 있을 수 있다.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곳이 포트홀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장마철 비가 많이오게되면 아스팔트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아스팔트포장에 균열이 생긴다. 아스팔트알갱이가 떨어져 나가며 생겨난다.

다른 경우는 겨울철 포트홀이다. 눈내리면 재설차가 염화칼슘 뿌리면서 돌아다니면 눈이 얼지않고 녹으면서 아스팔트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다 얼면서 균열을 발생시키는 경우다.

◆2020년 포트홀 사고

연간 포트홀 발생 건수는 2016년 11,952건, 2017년6,278건, 2018년 10,312건, 2019년 6,486건이다.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평균 7천6백건을 유지하다 지난해인 2020년에는 11,616건으로 갑자기 확 늘어났다.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이 국가 보상제에 따라 보상받기가 쉽지만은 않다.

운전자들은 사고와 관련된 포트홀 연관성을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인근 CCTV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차량 피해를 뒤통스게 인지할 경우 사고 발생 지점조차 알기 쉽지 않고 주요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포트홀 사고는 한국도로공사에, 폭 20m 이상의 시내 도로 사고는 서울시, 20m 미만의 도로 사고는 구로구에 배상을 신청해야 하는 형식이다.

각 지자체는 포트홀 피해 보상을 위해 별도의 도로 보증을 들고 있으며, 포트홀 피해 보상은 지자체가 직접 피해를 보상하는 '영조물 배상처리'와 '국가 배상처리'로 분류된다.

운전자가 포트홀 사고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직접 배상하고,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원인 규명이 힘들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의 심의위원회를 통한 국가 배상처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민수 기자>

제3회 '구로마을민주주의' 축제 개최

10일 구로아트밸리 콘서트, 10~24일 갤러리 구루지서 전시회

구로구가 10일부터 24일까지 제 3회 '구로마을민주주의' 축제를 개최한다.

구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구로마을민주주의 축제는 사전 예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민주주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축제는 구로구, 구로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올해 6월 항쟁 34주년 기념사업회 추진 중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구로구, 구로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다.

'구로마을민주주의' 축제에서는 콘서트, 전시회 등 참여형 행사가

펼쳐진다.

축제 첫날인 10일에는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구로아트밸리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한 위로와 응원이 담긴 이번 콘서트는 안치환과 자유밴드, 손병휘 등이 참여해 공연을 펼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주민 30여명이 릴레이 낭독하는 영상도 소개된다.

10일부터 24일까지는 6월 민주주의 기획전 '그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가 갤러리 구루지 1·2 전실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구로의 민주주의 역사 관련 사진, 자료와 함께 구로 민주주의 영상 콘

텐츠도 감상할 수 있다.

회차당 최대 25명이 관람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23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희망일을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기획예산과(02-860-2283)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석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축제가 민주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새마을부녀회가 지난 5월 21일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관내 저소득층 300가구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구로구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밑반찬' 전달

구로구새마을부녀회(회장 김미경)는 지난 5월 21일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관내 저소득층 300가구에 전달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일에 걸쳐서 구로구 평생학습관 마당에서 구로구새마을부녀회 회장과 각동회장,

동임원등 모두 46명이 참여하여 정성으로 열무김치, 쇠고기불고기, 자반 김등 밑반찬을 만들어 새마을지도자 구로구협의회(회장 정태충)와 각동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밑반찬을 각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박순옥 신도림동 시민기자>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입양가정 지원조례' 대표 발의

"입양아동 권익·복지 증진 및 건전한 입양문화기반 마련"

구로구의회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구로구의회는 이재만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 4일에 개최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이재만 의원은 "전반적인 저출산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입양을 장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입양가정 지원을 위해 정책의 수립, 실태조사, 연구,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입양축하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입양부모가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구로구



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구청장은 입양신고 사항 및 입양 축하금 지원대상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발생한 양천입양아동학대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을 입양가정의 문제라는 부정적인 시선에 입양가정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이제는 입양가정에서 입양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양가정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채홍길 기자>

제 3회 구로마을 민주주의 축제

민주주의를 노래하다

2021.6.10.(목) 19:00



장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예매
- 기간 6.1.(화) 10:00 ~ 6.8.(화) 15:00, 선착순 예매
* 티켓은 공연 시작 1시간 전, 선착순 배부
- 방법 구로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접수
- 전석 무료

관람연령
8세이상부터 관람가능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입장가능)

문의전화
기획예산과 협치정책팀 02-860-2189

출연진
안치환과 자유, 손병휘
자유밴드 기타 정용민, 베이스 서민석, 드럼 정원식, 건반 지신엽



구로구 구로문화재단 Guro Cultural Foundation
※ '거리두기 최석제 실시' 본 공연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한칸 띄어앉기(앞뒤·양옆)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역/사육민 양장/325쪽/값12,000원/발행일 2013년 3월 5일
문의 : 010-9096-1144

2021.5.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됩니다.

과태료 금액 : 승용차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9만원 → 13만원

서울구로구청장 서울구로경찰서장

오류2동 장학회 '지역인재 육성 앞장'

각계 주민들 힘모아 장학금 지원 7년간 고고생 104명에 1억원 전달



오류2동 장학회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인재를 발굴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7년간 우수고교생 104명에 장학금 1억원을 마련해 전달했다.

구로구 오류2동 장학회(회장 강기영)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인재를 발굴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은 기관, 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어린이집 원아 등 다양한 계층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조성됐다.

오류2동 장학회 강기영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힘을 모아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장학금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출범해 올해로 7년차에 접어든 오류2동 장학회는 총 104명의 학생에게 모두 9956만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기금을 받은 학생은 2015년 17명을 비롯, 2016년 26명,

2017년 20명, 2018년 19명, 2019년 22명이다.

오류2동 장학회는 거주지가 오류2동인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정대상은 인재육성장학생(학업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인 자 등), 특기장학생(체육, 문화예술, 기능, 수학·과학 분야 입상자), 지정장학생(장학금 기탁자가 지정하는 자) 등이다.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연 100만원 이내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올해는 오류2동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27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2700만원의 인재육성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오류2동 이광식 동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주민들께서 장학금을 지원해주셨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요즈음은 효자(孝子)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면 착하고, 순한 아이다. 혹은 부모 말을 잘 듣는 아니라는 말로 효자, 효녀를 대신한다.

물론 지금도 자치단체나 나라에서 효자, 효녀를 선발해서 상장을 주는 등 효를 장려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경제가 발달되고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

효의 구도 관계는 자식과 부모간이다. 자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존경하는 태도를 배우고 몸에 익힌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는 한 가족의 우두머리로서 자식에 대한 엄격한 훈육을

효자(孝子)에 대하여 ㉔

가면서 효(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 되면서 '효'도 무너져 가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하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좁게는 아버지와 아들간의 관계가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부자관계를 지배하는 행위규범은 효(孝) 또는 효도(孝道)로 집약될 수 있다.

담당할 지배적인 인물로 모시고 섬길 것이 요구되지만, 어머니의 경우에는 인자하고 너그럽고 별로 무서워할 것이 없는 모성상(母性像)이 어려서부터 심어진다.

문제는 모성상이 맹목적으로 강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끔 메스컴을 장식하는 분노장애자의 경우 대부분의 원인이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문학적 철학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 회장>

에듀윌 박명규 대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받아

"나눔 활동 '검정고시 지원'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기여"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 6월 3일 구로경찰서(서장 임경우)에서 진행된 '청소년 선도·보호 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포상 수여식'에서 검정고시 지원을 통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상했다.

에듀윌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해 8월, 구로경찰서와 MOU를 체결하고 관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에 나섰다.

약 4천만원 상당의 고졸 검정고시 및 중졸 검정고시 강의와 교재를 4곳의 청소년 보호 기관에 기부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박명규 에듀윌 대표와 에듀윌 사회공헌위원회가 참석해 직접 감사장을 전달 받았다.

박명규 에듀윌 대표는 "합격이라는 눈부신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준 청소년들에게 감사드린다. 에듀윌과 에듀윌 사회공헌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에듀윌은 세 번의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 정부기관상 13관왕에 빛나는 종합교육기업이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 박명규대표(왼쪽)가 지난 3일 구로경찰서에서 열린 '청소년 선도·보호 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포상 수여식'에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임경우 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 받고있다.

한국리서치 공무원 선호도, 인지도 조사 결과 1위에 올랐으며,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에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자 배출 기록을 세 번 공식 인증받았다.

<채홍길 기자>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구로구니눔네트워크 구로사랑 희망이음 캠페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지역사회 기부자와 취약계층 주민을 연결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지역맞춤형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015-176590-13-5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문의 02-867-1695 구로희망복지재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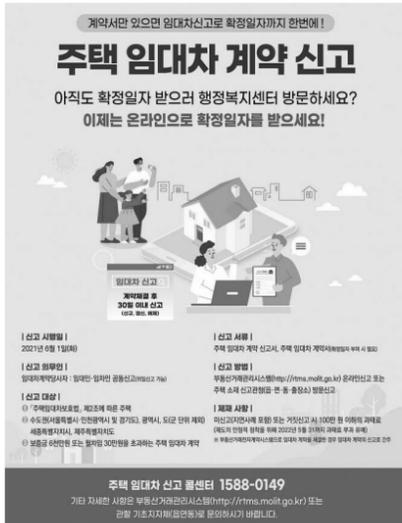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이상-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와 동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후 30일내 신고

구로구가 지난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관할 자치단체로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등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신규·변경·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임차인이 공동 서명한 뒤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관



할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부여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나 대리인을 통한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 시 원본 서류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PDF, JPG, PNG 등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구청 부동산정보과 860-2533,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채홍길 기자>

임경우 구로경찰서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구로경찰서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사진>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SNS를 통한 참여형 릴레이 이벤트로 진행되고 있다.

임경우 구로경찰서장은 교통안전 캠페인 구호(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와 함께 캠페인에 동참했다. 구로경찰서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올바른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박래준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명을 받은 임경우 구로경찰서장은 다음 참가자로 구로초등학교 박해경 교장, 구로중학교 송일민 교장을 지목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어린이용 투명우산 100개 제작 전달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 구민체육센터는 27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투명우산 100개를 제작해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했다.<사진>

어른보다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은 특히 비오는 날 우산사용으로 인해 평소보다 시야확보의 어려움과 교통사고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점에 착안해 구로구민체육센터 직원들

이 직접 만든 투명우산 100개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공단 유영환이사장은 “직원들이 직접 만든 우산이 아이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로구민체육센터의 이기희 파트장은 “우천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투명 우산을 지원



하게 되어, 지역 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안양천 전용 보행교 ‘금천한내교’ 개통



지난 5월 31일 개통한 안양천 보행 전용다리인 '금천한내교'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보행교인 ‘금천한내교’가 지난 5월 31일 개통했다.

안양천을 가로질러 금천구 독산

1동과 독산1동 분소지역을 잇는 길이 201m, 폭 4.5~15m로 조성된 금천한내교는 안양천에 처음으로 조성된 전용 보행교다.

이번 보행교 개통으로 안양천과 경부선 철도 등으로 단절되어 시흥대로로 돌아서 왕래해야만 했던 금천 독산동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인접한 광명시와의 지역교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나무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조성된 금천한내교는 승터와 승강기, 경사로 등을 새롭게 설치해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동편의를 개선했다.

또 교량 바닥판에는 교량하부 하천의 풍경을 볼 수 있도록 강화유리와 야간조명을 설치해 안양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금천한내교’는 총사업비 95억 원을 들여, 2019년 5월 착공해 2년 만에 준공했다. <채홍길 기자>

배달대행, 이제는 제도화가 필요할 때다

기고



임석환 <구로경찰서 교통과장>

요즘 배달대행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건만 구비되면 누구나 배달대행 업체를 차릴 수 있으며, 이륜차 관련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를 고용하든 아무런 규제가 없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주문이 증가하다 보니 배달대행 업체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배달대행은 업소측에서 보면 인건비 절약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그러나 배달대행에 대한 국민들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다. 왜 그런지 배달대행 업체는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도로에 나가보면 배달통을 매달고 운행하는 이륜차를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 배달대행 이륜차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운행하는 이륜차를 많이 볼 수 없다. 배달대행은 배달 건수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하려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위험하게 운행하고 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은 보통이고,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는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횡단보도 및 인도에서도 이륜차를 운행하며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과

속으로 운행하니 자동차나 중앙분리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부딪쳐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배달대행 이륜차의 법규 준수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륜차 사고로 인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배달대행 업체 자체적으로도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업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할 때다. 업체는 직원상대로 교육을 강화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유업으로 신고만하면 영업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일정한 요건과 조건을 구비하여 야간 영업할 수 있는 허가제로 법률화하여 행정청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법규 위반도 감소하리라 생각한다.

이제는 빠른 배달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바꿔 품격있고 안전한 배달이 필요할 때다. 깔끔한 복장을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배달하는 품격있는 배달, 업체측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업체측에서는 교통사고 없는 품격있는 배달을 시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안전한 배달대행이 되었으면 한다.

학교 앞 교통안전 ‘스마트 알림이’ 구축

오정초·신도림중 설치 완료...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 총 17곳 마련 시야 사각지대 교차로·경사로, 우회전 차량 등 위험 지역 설치

구로구가 학교 인근 교통 사각지대에 ‘스마트 알림이’를 설치해 어린이 보호안전을 강화한다.

구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가 많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알림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설치가 완료된 오정초·신도림중을 포함해 현재 총 17곳에 스마트 알림이가 운영 중이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 알림이’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교차로 사각지대 등 교통안전 위험이 있는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시설이다.

‘스마트 교차로 알림이’는 사각지대가 있는 교차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패널에 표출해 차량 접근 상황이 보이지 않는 맞은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알려준다. 이번에 설치한 장소는 차량통행이 많으나 시야확보가 어려운 오정초등학교(경인로2길 10) 교차로다. 이에 앞서 구로구는 지난해 개음초·영서초·사랑유치원, 2019년 구일초·오류남초·동구로초·덕의초, 2018년 고척중·구일중 인근에 교차로 알림이를 설치한 바 있다.



구로구가 학교 인근 교통 사각지대에 ‘스마트 알림이’를 설치해 어린이 보호안전을 강화한다. (사진은 최근 설치가 완료된 오정초교 앞 스마트 알림이)

이와 함께 구로구는 지난해 높은 건물과 벽으로 가려져 시야 확보가 어려운 오류초에 회전교차로 알림이를, 경사로가 있는 영일초에 경사로 사각지대 알림이도 마련했다.

횡단보도 우회전 진입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한 ‘스마트 우회전 알림이’도 구축했다. 보행자에게 LED 표지판과 음성을 통해 차량 접근을 알리고 운전자에게는 실시간 주행 속도를 알릴 패널에 표출해 정속 주행을 유도한다. 이번 설치 지역은 신도림중학교(경인로63길 74)다. 지난해에는 미래초·고산초·세곡초 2019년에는 경인로

59길 7 인근 삼거리에 설치했다.

또한 신도림초(신도림동 316-6)에는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계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운전자가 과속·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해당 차량 모습을 전광판에 송출해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보행자가 무단횡단 할 경우에는 경고 음성을 송출한다.

김수한 스마트도시과장은 “한순간의 방심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모두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주민 1차 백신접종을 15.37%

백신부작용도 158건 신고



구로구 관내 현재 만 19세 이상 내·외국인을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약 30만 5천여명이다. 구로구 전체 주민 43만여명 중 70%에 달한다.

구로구 관내 현재 만 19세 이상 내·외국인을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약 30만 5천여명이다. 구로구 전체 주민 43만여명 중 7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6월7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1차 접종을 마친 주민은 4만5,533명으로 접종 대상 주민 30만 5천여명의 15.37%가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 접종을 마

친자도 15,569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첫 백신 접종 이후 관내 백신 부작용 건수는 158건으로 집계됐다.

구로보건소가 밝힌 백신 부작용 신고 158건을 증상별로 보면 △사망 2건 △아나필락시스 양반응 3건 △40도 이상 고열 등 중증 7건 △경미 증상 147건으로 신고 됐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구로구-구 사회복지협의회 “7월부터 5년간 위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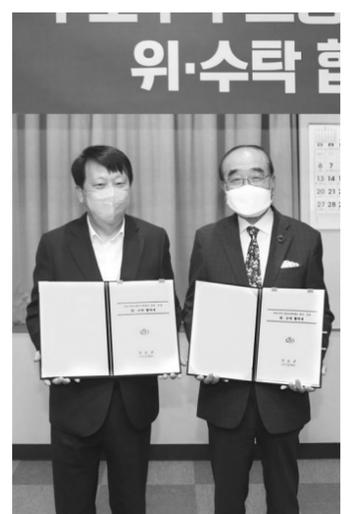
구로구가 지난 2일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와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8년 개관해 구 직영으로 운영되는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구로2동 자치회관 1층)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 물품과 식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품 모집·관리·배분, 기자자 발굴 등을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한다.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성 구청장, 김한기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로구는 지난 3월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수탁자 선정심의 등을 거쳐 5월 17일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수탁 법인으로 최종 선정 한 바 있다.



구로구가 지난 2일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와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 이성 구청장, 오른쪽 김한기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장)

지난 2000년 창립한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좋은이웃들’ 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시설·단체 등과 협력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유권 기자>

관내 확진자 누적 1,500명 넘었다

8일 현재 1,522명으로 증가세는 주춤... 사망자 11명 그대로

서울 확진자 4만5,497명-사망자 498명

구로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1,500명을 넘어섰다

8일 현재 확진자는 1,522명으로 일주일 전 비해 28명이 늘었다. 신규 확진자는 한달 전 1주일 60여명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로 하루 평균 4명이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확진자 접촉으로 집단 감염 발생은 없었다. 사망자는 지난주와 같이 11명이며 1,449명이 완치 퇴원, 58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311명, 해외입국자 462명 등 모두 773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미소독요양병원 관련 47명, 오류동 해적집 관련

42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개봉동 욱(유전)사우나 16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4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신도림동 핀포인트타워(콜센터)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타시군구 접촉자 936명, 해외 입국 13명, 기타(조사중) 395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8일 현재 모두 4만5,497명으로 사망자는 498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송파구가 제일 많은 2,730명 ▲강남구 2,602명 ▲강서구 2,229명 ▲노원구 2,107명 ▲관악구 2,084명 ▲중랑구 2,044명 ▲은평구 1,968명 ▲

서초구 1,939명 ▲동작구 1,905명 ▲성북구 1,902명 ▲강동구 1,835명 ▲영등포구 1,677명 ▲동대문구 1,674명 ▲양천구 1,583명 ▲구로구 1,522명 ▲광진구 1,491명 ▲마포구 1,441명 ▲도봉구 1,426명 ▲강북구 1,314명 ▲성동구 1,243명 ▲용산구 1,203명 ▲서대문구 1,140명으로 22개구가 1천명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768명 ▲금천구 758명 ▲중구 688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경찰지구대 앞 건물 옥상서 ‘양귀비 재배’... 80대 여성 입건

건물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80대 여성 A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구로구의 자신이 소유한 건물 옥상에서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

귀비 227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건물은 경찰 지구대 바로 앞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구대의 국기와 청사기 점검을 위해 옥상에 올라갔던 경

찰관들은 맞은편 건물 옥상에 붉은색 꽃이 여러 개 피어있는 것을 보고 출동해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채홍길 기자>

이운학 시인 '나보다 더 오래 내게 다가온 사람' 출간

65편 수록 대부분 산문시, 생활서사시... 열 번째 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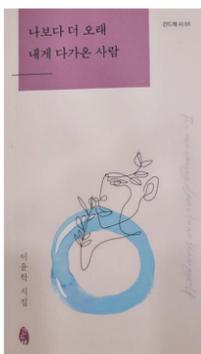
이운학 시인이 [나보다 더 오래 내게 다가온 사람(간드레 출판)]을 출간했다.

65편이 수록된 이 시집은 대부분 산문시, 혹은 생활서사시에 가깝다.

뒤편까. 이 시인의 시를 읽노라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시 쓰기의 기본 즉, 시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니 설명하려 들지 마라"고 외치던 문장과 교수들의 가르침에 가우뿔 물음표가 생긴다.

65편의 시를 읽고 책을 덮으면 한 권의 이미지가 통으로 남는다. 시의 소재 대부분이 시골 풍경과 마을 사람들의 비애와 연민 때문일 것이라고 물음표를 만지다보면 다시 첫 페이지에 당도해 있다. 이것이 이운학 시인이 독자들을 흡입하는 힘인 동시에 개성일 것이다.

분명 읽었는데 읽지 않은 것 같이 두 번 세 번 읽으면 또 새롭게 읽히는 묘미가 있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시의 관점과 가치 기준을 갖춘 독특한 때문에 작품 속에 초점과 재현하는 대상들의 재현적인 진실을 간과하기 위해



서는 읽는데에 집중을 필요로 하는 장단점도 있다. 일상적인 실존을 구성하는 체험장 같기도 하고

자연주의 작가들이 시도하는 생활의 파편이 편 편마다 놓여 있는 것도 특징이다.

시를 읽다보면 한 인간의 비애와 만나고 술에 취한 술꾼과 어느새 조우하게 된다.

카메라를 들고 관찰하는 것처럼 세밀화 되고 특수한 관계에 단편들을 체험케 하는 디지털리즘(Digitalism)도 돋보인다.

박형준 시인은 "이운학 시인은 독사처럼 머리 치켜든 비애와 맞서고 있지만 그 머리를 베어 버리지 못한다. 이 세상의 가난한 모든 것들의 흔적을 지독하리만치 끈질긴 응시의 미학으로 복각해낸다"며 "물뱀을 독사로 만드는 신기한 재주를 지닌 사람"이라고 했다.

모른 척 외면했기에 직면하는 날들을 겨우 견딜 수 있었다/ 네 가슴은 거기서부터/ 내가 태워먹은 자리였다/ 네 가슴은 거기서부터/ 내가 근접 못할 아랫목이었다 [옛날 북문시장엘 갔다 중에서 일부 발췌]

이운학 시인은 아버지가 금광에 다닐 때 사용한 간드레를 본인의 출판사 이름으로 쓸 만큼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무궁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오래된 그림자, 그러나 필력의 일렁임을 통해 더욱 명징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 리듬을 따라 시어가 움직이고 에필로그(epilogue)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버지가 괴우된 줄담배와 노랫소리 등이 목울대에 걸려 시로 토해지는 것은 아닐지.

이운학 시인은 199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화려하게 데뷔했으며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시집으로 '먼지의 집' '붉은 열매를 가진 적 있다' 등 모두 10권의 개인 시집이 있다.

<조운주 객원기자·시인 333news@hanmail.net>

초대시

목새

시인 조규남



모래 속에서 새 울음소리가 난다
비닐봉지 구겨지는 소리로 흐느낀다
지표에 내려앉은 충격
점점 주름으로 포개놓은 새
물의 날개로 날아와
시냇가 모퉁이 차지하고 있다
*목새라 했지!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말
대대로 유전되다가
아무도 모르게 이지러진 말
주워 담으려면 주르르 흘러버린다
오랫동안 잊고 살아 서걱거린다
목새라 일러줘도
무슨 나무에서 사는 새냐 되물으며
낮설어 하는
피가 식어버린 말이
어리둥절 섬을 만들어 놓고 외로움 토해낸다
발가락 사이 파고들며 꿈지락 꿈지락 운다
사막의 기억이 뜨겁다

*목새 : 물결에 밀리어 한곳에 쌓인 보드라운 모래.

- 2012년 농민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
- (현)구로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현)구로문화원 시 창작 목요반 강사
- 제6회 구로문학상 수상
-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 창작지원금 수혜
- 시집 '연두는 모른다'와 소설집 '핑거로즈'
- 공저 '꽃진 자리에 아버지사랑' '아우성' 등 다수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심사위원 모집

전국 초 4학년~중학생 100명 ... 13일까지 영화제 홈페이지서 신청

구로구가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키즈챗린지 부문 어린이 심사위원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까지의 학생 100명이다.

심사위원단은 영화제 출품작 중 초등학생·중학생이 제작에 참여한 작품을 평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심사는 16일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화를 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13일까지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홈페이지(movie-guro.or.kr)에 마련된 링크를 통해서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로구는 14일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에게는 위촉장 등이 수여되고 영화제 공식 책자에 심사위원으로 이름이 기재된다.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씨네Q 신도림, 신도림오페라하우스와 온라인 플랫폼 무비블록에서 개최된다.



구로구가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키즈챗린지 부문 어린이 심사위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까지의 학생 100명이다.

제 869-6046, 구청 문화관광과 860-2585. (김유권 기자)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중식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